吳澐과 「咸州志」

Ow, Un and 「Ham-Ju-Ji」

김순희(Kim,Soon-Hee) *

◁ 목 차 ▷

1. 序 論
2. 圖書編纂者로서의 吳澐
2.1 吳澐의 生涯
2.2 吳澐의 編纂書 槪觀
3.「咸州志」의 編纂過程
3.1 鄭逑와 「咸州志」
3.2 吳澐과 「咸州志」』
3.3 編纂背景
3.4 意義 및 價値
4.「咸州志」의 特徵
4.1 體裁 및 記述方式
4.2 構成上의 特徵
5. 結 論
<참고문헌>

<초 록>

본고는 조선조 중기의 중요한 도서편찬자인 吳澐(1540-1617)이 직접적으로 편찬한 도서나 간접적으로 편찬에 참여한 도서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것으로 한국 최초의 私撰邑誌인 「咸州志」의 편찬과 전래 과정에서 吳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함주지」의 편찬과 지금까지 전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오운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궁극적으로 오운이라는 도서편찬자의 업적을 다시 한 번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要語 : 吳澐, 私撰邑誌, 咸州志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siva@cnu.ac.kr)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e author got a clue in the survey process of books which Ow-Un, the book editor lived in the middle period of Chosun Dynasty,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d in edit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the main role Ow-Un showed through the process of transmitting and editing the Hamjuji- the first private Korean Geographic book.

Finally, in this paper, I present the editing of that book and Ow-Un's role in the process of transmitting the Hamjuji and intend to emphasize the editor Ow_Un.

Keywords : Ow-Un, Private Korean Geographic book, Ham-ju-ji

KCI

1. 序 論

본고는 조선조 중기의 중요한 도서편찬자인 吳澐(1540-1617)이 직접적으로 편찬한 도서나 간접적으로 편찬에 참여한 도서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것으로 한국 최초의 私撰邑誌인 「咸州志」의 편찬과 전래 과정에서 吳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함주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함주지」의 역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서로 파악하거나[1] 地理誌로서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서지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어[2] 「함주지」의 실질적인 편찬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읍지의 편찬자가 寒岡 鄭逑(1543-1620)이고, 그가 咸州, 즉 지금의 경상남도 咸安郡의 邑宰로 부임하여 이 읍지를 편찬했다는 사실에 이의가 없다. 실제적으로 정구가 편찬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구가 함안군수로 재직하던 중 이 책을 편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읍지의 편찬을 주도한 사람이 오운이라는 사실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학계의 실정이다. 단견이지만 「함주지」의 편찬이 정구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편찬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오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

1) ①崔允榛, "朝鮮時代 地方士族 硏究,"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4).
②崔允榛, "朝鮮前期 鄕村勢力 硏究를 위한 試論," 「전주사학: 中庵兪炳基敎授華甲紀念論叢」 4(1996. 11), 83-109.
③姜昌龍, "16世紀 私撰 邑誌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崇實大學校 大學院, 1998).
④金慶洙, "鄭逑의 「咸州志」 硏究," 「民族文化의 諸問題 : 于江 권태원 교수 정년기념논총」 (대전: 세종문화사, 1994).
⑤박주, "朝鮮中期 孝子, 烈女에 대한 考察: 「咸州志」와 「永嘉誌」를 중심으로,"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硏究論文集」 56(1997. 12), 143-167.

2) ①楊普景,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7).
②楊普景, "朝鮮時代 邑誌의 체재와 특징," 「인문과학논집」(강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4(1997), 203-225.
③楊普景, "朝鮮 中期 私撰邑誌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81(1998. 10), 43-72.

며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본고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함주지」의 편찬과 지금까지 전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오운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궁극적으로 오운이라는 도서편찬자의 실상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함주지」는 현재 奎章閣에 <奎10985>本과 <奎12249>本이 있는데 후자가 조금 크고 筆寫本이다. 본고에서는 규장각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2. 圖書編纂者로서의 吳澐

2.1 吳澐의 生涯

오운의 본관은 高敞이다. 시조인 學麟의 13세손으로 1540년 9월 28일에 咸安 茅谷里에서 태어났다. 원래 오운의 선조들은 고창현에 살다가 서울로 이거하여 인왕동에 살았다. 그러다가 오운의 증조가 宜寧倅이 되었다가 해직하면서 함안땅에 거처하기 시작하였다.

오운의 선조중에서 조부 彦毅가 전의현감을 지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크게 관직으로 현달한 인물이 없다. 언의는 退溪 李滉(1501-1570)과 절친한 관계였으며 이로 인해 퇴계의 숙부인 松齋 李堣(1469-1517)의 따님과 결혼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오운에 이르러서 그의 가문은 함안지역의 토족세력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오운의 형인 吳澄은 鄭逑가 함안군수로 부임한 뒤 첫 번째 사업으로 퇴락한 사직단을 수리하였을 때 그 책임자로 임명될 정도로 군민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3]

오운은 19세 되던 해 南冥 曺植(1501-1572)에게 나아가 학문을 배웠으며

3) 「咸州誌」 社稷壇條, "郡人李喜成 吳澄董其役"
「寒岡集」 咸安社稷壇記 卷10, "詢之父老 得李喜成 吳澄 俾屬其役事焉"

25세 되던 해에는 퇴계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오운이 남명과 퇴계의 문하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신분과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오운은 27세 되던 해 10월에 결시문과에 급제하여 공식적으로 환로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때 西厓 柳成龍(1542-1607), 開巖 金宇宏(1524-1590) 등이 함께 급제하여 평생토록 우의를 간직하게 되었다. 여러 관직을 거친 오운은 44세 되던 해에 충주목사 겸 춘추관 편수관이 되었다. 오운이 47세 되던 1586년(宣祖19, 丙戌)에 寒岡 鄭逑가 함안군수로 부임하였는데 마침 오운은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함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오운과 정구는 나이로 4년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둘 다 퇴계와 남명의 문하에서 수학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들이 기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오운은 68세 되던 해에 정구를 위하여 안동의 부연정에 걸려 있던 송재와 퇴계의 시를 베껴 써서 보내기도 하였으니[4] 이들의 교우가 만년에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운은 53세 되던 해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자 忘憂堂 郭再祐(1552-1617)의 막하에서 활약하였다. 난 후 몇몇 관직을 거치다가 61세 되던 1600년에 忠佐衛副司果兼五衛將이 되었는데 이 해(宣祖33, 庚子)에 한양에서 정구를 다시 만나 「咸州志」를 열람하고 필사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내외직을 두루 거친 뒤 77세 되던 해 靑松府使로 부임하였는데 다음 해인 1617년(光海9, 丁巳) 3월 3일에 卒하였다.

2.2 吳澐의 編纂書 槪觀

오운의 일생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이 그가 서적을 대단히 애호하였으며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의 연보에 의하면 도서의 편찬이나 정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4) 「竹牖先生文集」 年譜, 68歲(條), "六月 爲鄭寒岡書安東府蓮亭所揭 松齋退溪兩先生詩板"

① 松齋先生詩集 ② 咸州志 ③ 龍蛇亂離錄 ④ 退溪先生年譜 ⑤ 嘯皐集
⑥ 朱子感興詩 一帙 ⑦ 朱子文錄 ⑧ 家世志 ⑨ 東史纂要 ⑩ 圃隱先生文集

이 중에서 오운이 직접 편찬한 것은 ②, ③, ⑧, ⑨ 등이고, 자신이 사비를 들여 간행한 것은 ①이며, 교정에 참여한 것은 ④, ⑤, ⑩이다. ⑥과 ⑦은 오운이 朱子를 흠모한 나머지 문집에서 발췌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5]

3. 「咸州志」의 編纂過程

3.1. 鄭逑와 「咸州志」

鄭逑는 함안에 부임하자마자 「咸州志」를 편찬하고 서문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놓았다.[6] 그는 우선 함안 지역이 넓고 백성들이 질박하면서도 산업이 융성하지 못하고 풍속이 순후하지 못한 까닭과 그 땅의 그곳에서 배출된 선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전해지지 않은 이유를 문헌의 부재에서 찾았다.[7] 그리고 학교와 향교, 사직단 등이 퇴락한 것에 대하여 깊이 상심하여 반드시 그것을 수리하고 개축할 것을 다짐하였다.[8] 그리고 읍지의

5)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장황하게 논할 수 없고, 별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6) 정구가 쓴 "咸州志序"는 현전하는 필사본 「咸州志」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이 「寒岡集」 卷10에도 실려 있다.
7) 「咸州志」 序,
"咸之爲郡 地廣而物不能阜 民質而俗不能淳 求之於古 非無搢紳之輩出 而質之於今 尙無文獻之可徵 胡爲其然哉 其非咸之可羞乎"
8) 「寒岡集 」咸安社稷壇記 卷10,
"而壇傾砌倒 門垣廢破 齋廬廚舍 幷無其所 苟且草率 不成模樣 潘守之臣所以欽崇命祀者 豈合如是哉 水旱札瘥之災 人心風俗之壞 蓋亦無怪乎莫之救也 誠愚不敏 旣此叨冒 遂不

편찬에 착수하여 李俁, 朴齊仁, 李瀞, 吳澐 등의 인물들과 상의하여 「咸州志」를 완성하였다.[9]

읍지를 편찬하고자 했던 정구의 의도가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 "백성의 가난이 비록 地瘠과 天災에서 연유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부역이 번중하고 刑政이 가혹하여 옥토에 거하는 백성이라도 스스로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世俗이 비록 옛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敎化의 근본이 없고 예절이 일어나지 않고 법집행 만이 엄한 즉 순한 선비가 행정을 맡더라도 깨끗하게 못할 것이고 하물며 공문서가 날로 쌓이고 변경은 급박하고 세금징수가 엄하고 책임만 엄히 물으니 수령된 이가 어찌 生民의 요체에 뜻을 둘 것인가 …(중략)…오직 금일에 바라는 것은 백성들이 이 말에서 잘하게 되고 앞에 한 말에서 깊이 경계하는 것이 있어서 그 기미의 있는 바를 잘 살펴 더욱 그 근본에 힘쓸 것과 백성을 편안히 하고 풍속을 착하게 하는 요체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미치는 바가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내가 비록 말하지 않고자 하나 또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중략)… 농사와 학문에 힘쓰고 위로는 국가의 부세를 신중히 하고 아래로는 몸을 지켜 집에 거하는 방법을 잃지 않으며 서로 화목하여 老少에는 순서가 있으며 一郡의 풍습이 인의도덕에 맞아 왕의 덕화에 부끄럽지 않도록 힘써, 금일에 부지런히 하여 뜻을 펴는 바가 내가 탄식하는 깊은 뜻이다."[10]

敢容已 輒謀所以修正者"

9) 「咸州志」 序,
"余於郡 求單父之所友 得武城之直徑 李汝宣俁 寬厚長者 朴仲思齊仁 隱德有操 李汝涵瀞 才行俱高 皆余所畏 而每見而每喜者也 吳太源澐 亦以邑中先進 方提督郡學 公私相聚 屢與之從容 相與見余所集山川民物之錄 以爲盍撰而成爲郡志乎 則余志也 意見旣符 緝錄斯共 濡翰旬日 功乃告訖 非諸君之諉而勤敏而謹 何其事之速成 而其緖之有條乎"
郡學 公私相聚 屢與之從容 相與見余所集山川民物之錄 以爲盍撰而成爲郡志乎 則余志也 意見旣符 緝錄斯共 濡翰旬日 功乃告訖 非諸君之諉而勤敏而謹 何其事之速成 而其緖之有條乎'

10) 「咸州志」序.
"民貧雖由於地瘠天災 而賦役之煩 刑政之苛 叫囂墮突之不暇 則雖使沃土之民處焉 其有能自保者乎 俗漓雖由於 風土之舊 而敎化無本 禮讓不興 惟法令繩律之是嚴 則雖使淳質之士當之 其有能自淑者乎 況文移日委 邊警日劇 徵毒是煩 詞責是峻 爲守令者方且困於期會 簿書之間 而不遑是憂 曷遑有留意於生民之要 迪士之方者乎 …(中略)… 唯今日之所望 則爲長民於玆焉者 有以深警夫前之所言者 而審其幾之所在 益加勉乎其本 而毋忽於安民善俗之要 則其效之所及 殊非余之所敢言 而亦有非余之所敢量者 余雖欲不言 而又安得不言哉 …(中略)… 力穡懋學 勉焉日 惟孜孜 上旣謹乎公家之賦 而下不失持身居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安民善俗'의 방편을 찾기 위하여 읍지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구는 지방의 목민관으로 부임할 때마다 읍지를 편찬하였다.[11] 그 이유는 맡은 고을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풍속을 순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읍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정구는 함안에 부임하자마자 「咸州志」의 편찬에 착수한 것이다.

3.2 吳澐과 「咸州志」

오운은 임란 후 정구에게서 「咸州志」를 얻어 보고 1부를 필사하였다. 현전하는 「咸州志」에는 전하지 않지만 오운의 문집인 「竹牖先生文集」에는 이 읍지의 편찬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인 '題咸州志後'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정구의 「咸州志」 序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咸州志」의 편찬과 전래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오운은 「唐本建陽志」와 「大明一統志」에는 州府志가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군현의 읍지가 없다는 사실을 개탄하였다.[12] 이어서 정구가 함안군수로 부임한 뒤에 읍지를 편찬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였다.[13] 앞의 「咸州志」 序에서 말한 朴齊仁과 李瀞과 李俔 등 이 읍지의 편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家之方 親隣相睦 少長順序 磨礱講究 深造自得 俾一郡之習俗 共相躋於仁義道德之場 而無愧於當宁文明之化 則斯今日所奉拳者 而余之所發嘆之深意"

11) 金慶洙, "鄭逑의 「咸州志」 硏究," 「民族文化의 諸問題: 于江 권태원 교수 정년기념 논총」 (대전: 세종문화사, 1994). p584.
"38세 때 처음으로 昌寧縣監에 부임하여 그 해에 「昌山志」를 편찬했으며 40세때는 「冠儀」를 撰하고 42세 때에 同福縣監에 부임하여 「同福志」를 편찬하였다."

12) 「咸州志」題咸州志後.
"嘗見唐本建陽志 載其一邦風土事蹟 裒成數卷 則一統志 外又別有州府志 可知吾東國郡縣有志 未之前聞"

13) 「咸州志」 題咸州志後.
"我寒岡鄭相公 往在丁亥季間 佩符咸州 莅郡之初 慨然以崇祀典樹風聲 爲發政第一事 修社壇 表賢祠 餘旌閭 無廢不興 又念本郡溪山之秀 地靈之美 甲于海邦 而文獻無徵 內招延儒士 議撰郡志 設局於官裏 其凡例悉倣輿地志 而總目有加焉"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글의 끝에 소개되어 있다.

오운은 「咸州志」에 산천과 고적, 호구와 전결, 인물과 풍속, 그리고 사대부의 묘갈과 지명 등을 찾아 내지 못한 것이 없다[14]고 단언하였다. 이어서 시골의 아낙네나 천한 노예들의 행위가 孝烈의 가치가 있다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였으며, 유행하던 속담이나 이야기들도 비루하다고 하여 버린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다.[15]

이리하여 읍지가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간행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생한 이후로 7년 동안 이 책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鄭逑는 士友들의 도움으로 이 읍지를 海印寺에 감추어 온전히 보관될 수 있었다.[16] 임란 후 오운은 내직에 근무하다가 鄭逑를 만나 지난날을 회상하던 중에 「咸州志」에 대하여 말하게 되자 鄭逑에게 열람을 요청하였으며 받아 본 뒤로는 곧바로 1부를 필사하고 뒤에 '題咸州志後'를 붙여 보관하였다.[17]

현전하는 「咸州志」가 鄭逑의 소장본인가 아니면 오운의 필사본인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기록은 없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정에 앞서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선생이 저술한 책에는 羹墻錄 聖賢風範 古今忠謀 洙泗言仁錄 心經發揮 五先生禮說 五服沿革圖 深衣制度 武夷誌 谷山洞庵誌 臥龍誌 歷代紀年 古文會粹 등이 있는데 전쟁을 치른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것은 心經發揮 五先生禮說 五服沿革圖 深衣制度 武夷誌 歷代紀年뿐이다. 또 가는 고을마다 모두 읍지를 만들어 그 읍의 산천과 방곡, 인물, 사적들을 기록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는데

14) 「咸州志」 題咸州志後.
"山川古跡 戶口田結 人物風俗 與夫士大夫 墓碣誌銘 靡不窮探"

15) 「咸州志」 題咸州志後.
"備載至於村婆賤隷 行涉孝烈 雖細必錄 街談里諺 事或可傳 雖俚不損"

16) 「咸州志」 題咸州志後.
"咸之士民 皆以未及謄出爲恨 辰巳之變 郡爲賊藪者殆七季 撲地煙村 蕩焉焦土 雲山水竹 亦爲之慘裂 設使當時 寫置此紙 能保其存乎 幸惟寒岡萬軸賴士友之力 幷藏於海印寺 得爲韋逃之終南 而州之志 亦獲瓦全 是則天也"

17) 「咸州志」 題咸州志後.
"他時對卷 興感當不異於今日 玆將購紙謄寫 歸其本而 書于後 以寓夫傷今思古之意云"

모두 보존되지 못했다.[18]

旅軒 張顯光(1554-1637)은 鄭逑의 제자로서 위의 인용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스승이 지은 도서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咸州志」를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鄭逑가 편찬한 읍지 중에 전하는 것이 한 권도 없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주목해야할 사안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정구의 수제자로서 스승의 行狀을 정리한 장현광이 「함주지」를 열람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행장은 먼저 집안의 자식들이 일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장현광이 찬한 행적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구의 집안 사람들도 이 읍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구가 찬한 「함주지」는 그가 찬술한 다를 도서에 비해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오히려 그 고장 출신인 오운이 이 읍지의 보전과 전승에 애착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 규장각에 전하고 있는 咸州志는 오운의 필사본일 가능성이 높다.

「함주지」의 말미에 任屹(1557-1620)이 쓴 跋文이 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백암 오공[19]이 책 한 권을 보여 주었는데 곧 「함주지」였다. …(중략)… 희라 읍지에 기록된 것이 가히 스승으로 삼을 수 있고, 가히 경계할 수 있고, 가히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풍족하도다. 진실로 이 읍지가 없었다면 함께 다 없어져 뒤에 이미 흙이 되었을 것이니 읍지를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중략)… 만력 계묘년 봄에 풍천후학 용담주인 임흘이 발문을 쓴다.[20]

---

18) 張顯光, 「旅軒集」 寒岡鄭先生行狀 卷13.
"先生所著之書 有羹墻錄 聖賢風範 古今忠謀 洙泗言仁錄 心經發揮 五先生禮說 五服沿革圖 深衣制度 武夷誌 谷山洞庵誌 臥龍誌 歷代紀年 古文會粹 而火灾之餘 今存者心經發揮 五先生禮說 五服沿革圖 深衣制度 武夷誌 歷代紀年而已 又於所涖之邑 皆有誌 以記其邑之山川坊谷人物事蹟 爲一冊者 而皆不保"

19) 白巖은 오운이 나이 47세 때부터 宜寧의 白巖臺 아래에 머물면서 사용한 별호이다.

20) 任屹, 「咸州志跋」, '白巖吳公 寄示一冊子 卽咸州志也 …(中略)… 噫 志之所志者 可以師

임흘은 趙穆(1524~1606)의 문인인데, 조목이 이황의 제자라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오운과 임흘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정구의 제자인 장현광이 볼 수 없었던「함주지」를 임흘이 오운에게서 얻어 보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 볼 때 이 읍지의 편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오운은 후에 이 책의 보관과 열람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3.3 編纂背景

16세기 이후에 편찬된 읍지는 1천여 종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현존하고 있어 읍지 제작은 조선 시대 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1531년(중종 26)「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간행은 민간차원에서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21]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읍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조선 중기의 읍지는 현실적인 이용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편찬되었으므로 높은 현실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읍지 편찬에 관여하였으며, 지방의 공론을 통한 여과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이나 객관성 면에서도 훌륭한 수준을 갖춘 읍지가 많았다.[22]

「咸州志」는 이와 같은 조선 중기 읍지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함안의 군수가 편찬하였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찬읍지이다. 그리고 편찬하게된 동기도 함안읍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安民善俗'을 실행할 수 있는 목적하에 이루어져 현실성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당시 함안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읍지의 편찬에 대거 참여하였다는 것은「咸州志」의 내용이 실질적이고

可以戒 可以娛賞者 不一而足 苟無此志 則同歸於泯滅 而後已有土之 有志烏可已乎…(中略)… 萬曆 癸卯 春 豊川後學 龍潭主人 任屹跋'

21) 楊普景(1998), 43.

22) 楊普景(1998), 44.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정구는 李俁, 朴齊仁, 李瀞, 吳澐 등과 더불어 「咸州志」를 편찬하였다. 이들 모두는 南冥 曺植의 門下生으로 寒岡 鄭逑와 함께 同門 修學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함주지」를 編纂하는데에 심혈을 기울였다.[23] 16,17세기에 경상도의 많은 지역에서 私撰邑誌가 간행되었으며 이는 주로 退溪와 南冥의 양대 학파의 문인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退溪와 南冥의 제자대에서 시작된 읍지 편찬의 추세는 그들의 문하생으로 연결되는 맥락을 보인다.[24] 따라서 「咸州志」의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함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 읍지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구를 도와 읍지의 편찬에 협력한 李俁, 朴齊仁, 李瀞 등과 吳澐이 읍지의 기술과정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구가 이 세 사람과 오운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음은 짐작할 수가 있다.

> 내가 이 군에서 단보가 벗하던 사람들과 같고 공자의 제자 자유가 만난 담대명렬 같은 사람을 얻었는데 여선 이칭은 관후한 長者이고 중사 박제인은 덕을 갖추고 지조가 있으며 여함 이정은 재주와 행동이 함께 높아서 모두 내가 경외하면서 매번 만나고 기뻐하는 자들이다.
>
> 태원 오운은 또한 이 고을 중의 先進으로서 바야흐로 고을의 학문을 이끌고 감독하였다. 공사간에 서로 만나서 여러 차례 같이 지냈는데 서로 내가 수집한 산천과 백성과 문물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어찌 찬성하여 군지를 만들지 않느냐고 말하였으니 곧 나의 뜻이었다. 의견이 부합된 뒤에 모으고 기록하는 것을 이에 같이하여 열흘이 지나 사업이 이루어졌으니 여러 사람들이 정성스럽고 부지런하며 민첩하고 삼가함이 아니라면 어찌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차례가 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25]

---

23) 姜昌龍(1998), 27.

24) 楊普景(1987), 70.

25) 「咸州志」序.
"余於郡 求單父之所友 得武城之直徑 李汝宣俁 寬厚長者 朴仲思齊仁 隱德有操 李汝涵瀞 才行俱高 皆余所畏 而每見而每喜者也 吳太源澐 亦以邑中先進 方提督郡學 公私相聚 屢與之從容 相與見余所集山川民物之錄 以爲盍撰而成爲郡志乎 則余志也 意見旣符 緝錄斯共 濡翰旬日 功乃告訖 非諸君之誠而勤敏而謹 何其事之速成 而其緖之有條乎"

위의 글에 나타나 있는 서술방식을 분석해 보면 李俁을 비롯한 세 사람이 한 항목이고, 오운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사람들은 함안군의 식자층으로 군내에 명망이 있는 인물들로서 정구와 일상적으로 교유하는 사이였지만, 오운은 고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로 대우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함주지」의 편찬이 오운과 정구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구가 수집한 관련 기록을 본 오운이 본격적인 읍지로 撰成하자는 제의를 정구가 수락한 것이 「함주지」의 실질적인 편찬동기임을 위의 기록이 증언하고 있다.

사실 李俁·朴齊仁·李瀞·吳澐 등은 咸安郡의 在地 士族으로 자신의 터전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신분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주지」의 編纂에 깊이 관여한 것[26]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임란을 겪고 난 후 국토가 분탕되어 田土, 森林, 墓地 등이 蕩失되고 居民의 生還도 희소한 상태 하에서 촌락 내에서의 연고권을 확인하고 前蹟을 살피는 근거 자료로서 전쟁 이전에 편찬된 「咸州志」를 중요시하게 되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토지나 삼림, 묘지 등의 소유권을 되찾는데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족, 부유층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임란 이전에 지녔던 세력 기반의 확보와 향촌 주도권의 새로운 장악을 위하여 촌락의 안정을 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읍지를 재간한 것[27]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3.4 意義 및 價値

「咸州志」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의의 및 가치는 현재 전하고 있는 읍지 중에서 최초의 私撰邑誌라는 점이다. 조선에서 편찬된 최초의 私撰邑誌는 기록상 전하는 바에 의하면 李耔가 1507(中宗2)년에 편찬한 경상도 義城의 「聞韶志」이다. 「聞韶志」는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 가장 최초의 읍지이다. 그러나 후

26) 楊普景(1987), 29.
27) 楊普景(1987), 29.

대의 읍지들을 통하여 16세기 전반의 읍지에 관계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6세기 후반 이후에 편찬된 읍지와 같이 체제를 갖춘 것이었는지는 의심이 간다. 따라서 완전한 읍지로서의 체제를 갖춘 것으로는 「咸州志」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 鄭逑가 편찬했다고 하는 「昌山志」와 「同福志」가 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읍지들의 자세한 체제를 알 수는 없지만 대개 「咸州志」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咸州志」의 항목을 살펴보면 勝覽에 없는 새로운 조항이 많이 첨가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各里' '戶口' '田結' '堤堰' '灌漑' '軍器' 등의 조목이다. '各里'조에는 各里마다 사방 강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東西·南北의 거리 및 里의 크기, 坊의 수와 이름, 土地의 肥, 水田·旱田의 정도 居民의 신분, 풍속 등을 기재하였다. '戶口' '田結'도 各里 단위로 기록하여 세부 지역에까지 소상한 파악을 하고 있다. 「咸州志」에 기록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수령이 田政·軍政·賦役을 부과하는데 기초가 되는 資料이다. 이를 통하여 "均賦役輕徭薄賦"의 정치 理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른바 "安民"의 요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咸州志」에는 이밖에도 勝覽에 수록이 안 되었던 '壇廟' '任官' '流配' '善行' '文科' '武科' '司馬' '塚墓' '旌表' '冊板' '叢談' 등의 항목이 첨가되거나 獨立항목으로 설정된다. 이 항목들은 지방의 풍속을 교화하고 名分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善俗"의 요체가 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咸州志」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조선전기에 정부의 주도하에 편찬된 전국적인 규모의 地理書 중 마지막으로 작성된 「東國輿地勝覽」이 갖는 모순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地理志의 서술양식에 일대 획을 그어 놓은 것이다.[28] 그리고 「咸州志」의 人物條가 크게 확대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함안군 인물조에는 李芳實과 趙舜 등 2명의 행적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咸州志」에는 도합 28명의 인물이 소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咸州志」에는 「東國輿地勝覽」의 孝子, 烈女條에 해당하는 善行, 閨行, 見行, 旌表條가 있다. 善行條에는 과거에 훌륭한

28) 崔允榛(1996), 99-100.

행실을 하여 이것이 조정에 알려져 旌閭되었거나 鄕黨의 칭송받은 7명의 사람들이 수록되어 있다. 閨行條에는 烈女, 孝婦 등 6명의 기록이 있고 見行條에는 볼만한 행실이 있는 37명의 사람들을 수록해 놓았다.[29]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咸州志」는 최초의 사찬읍지라는 의의와 이후 읍지들의 전형적인 체제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동시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술상의 자세함과 인물조 및 인물 관련 조목의 상세한 기술은 「咸州志」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4. 「咸州志」의 特徵

4.1 體裁 및 記述方式

「咸州志」는 필사본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첫 장에는 '京師相距'에서부터 '叢談'에 이르는 41조의 목록이 적혀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상란에 붙여 咸州志라고 쓰여 있고 한 글자 내려 '京師相距'라고 쓰여있는데 내용은 다시 한 글자 내려쓰고 있다. 이 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내용 중 해설이 필요한 것들은 협서쌍행으로 보충해 놓았다. 그리고 내용의 구분이 필요한 곳에서는 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任官條의 앞에는 姜伯珍이 기록한 '任官題名記序'가 있으며, 역대 함안군의 군수를 시대순으로 나열해 놓았다. 기록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직위와 이름을 쓴 뒤에 밑에 소자로 부임한 연도를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하란에 맞추어 고려와 조선의 임금을 써 놓아 일목요연하게 배열하였다. 끝에는 鄭逑가 쓴 '任官題名記跋'이 수록되어 있다.

---

29) 박주(1997), 3.

4.2 構成上의 特徵

오운의 역할과 「咸州志」의 특징을 연관 지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 및 인물관련조의 기록이다. 이 부분이 「함주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으며 기술방식도 行狀이나 傳의 형식을 빌려 서술한 것이 많이 있어 주목된다. 사실 정구가 수집한 자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구가 함안의 역대 읍재들의 명부인 「임관제명기」를 보고 그것을 읍지에 수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을 의 선비들의 행적이나 일반 백성들의 특기사항은 읍지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오운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된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李芳實의 기록을 살펴보겠다.

이방실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행적이 실려 있다. 다음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어 있는 이방실에 관한 기사이다.

> 충목왕을 모시고 원나라에 들어간 공로가 있었다. 충목왕이 즉위하자 중랑장에 보임되었고, 공민왕조에는 대호군으로 전임되었다. 선성 달로와치 노련상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방실은 용주 군사를 이끌고 가만히 강을 건너 바로 노련상의 집에 들어가서, 그 부자를 찔러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서울에 보냈다. 7년에 홍건적의 위평장·모거경 등이 의주를 함락시키고 부사와 주 백성 천여명을 죽였을 때, 방실은 안우·김득배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진격하여 아홉차례 싸운 다음 개선하였으므로, 추성협보 공신 호를 받았다. 10년에 홍건적이 삭주를 침공하므로 방실이 도지휘사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였다. 적에게 경성이 함락되자, 방실은 급히 진격하여 적군 20여만을 베어 죽이니 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김용은 방실이 큰 공을 이루어서 임금이 중하게 여길까 두려워하여서, 가짜 조서로서 방실을 시켜 정세운을 죽이게 하고 인하여 죄를 얽어 죽였다.[30]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咸安郡 人物 條).
"從忠穆入元 侍從有勞 補中郎將 恭愍朝 宣城達魯花赤 魯連祥叛 芳實以龍州兵 潛渡江直入連祥家 刺殺父子 傳首于京 七年 紅頭敵僞平章毛居敬等 陷義州殺府使及州民千餘 芳實與安祐金得培等 率兵進擊 凡九戰凱還 賜推誠協輔功臣號 十年紅敵寇朔州 芳實爲都指揮使 率兵擊之 及陷京城 進軍急擊斬首二十餘萬 賊遂平 金鏞恐芳實等 成大功 爲主所重 矯詔使 芳實等 殺鄭世雲 因以構罪而殺之"

위의 내용에 비해 李芳實에 대한 「咸州志」의 기록은 매우 방대하여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분명한 것은 위의 기록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咸州志」의 이방실 관련 기록이 오운이 편찬한 역사서인 「東史纂要」에 실려있는 이방실 관련 기록[31]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주요부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방실이 충목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서 모신 공로가 있어 중랑장이 되었다. 공민왕때에 선성에서 다루가치와 노연상이 반란을 일으키자 방실이 용주의 병사로써 몰래 강을 건너 곧바로 연상의 집에 들어가서 아비와 아들을 찔러 죽이고 머리를 서울로 가져왔다.…(중략)…
>
> 왕이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고 방실에게 옥대와 옥영을 하사하였는데 공주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찌 지극한 보배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종묘사직이 언덕과 폐허가 되지 않고 백성들이 어육이 되지 않은 것은 다 당신의 공이다.내가 비록 살갗을 잘라서라도 주더라도 오히려 보답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물건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
> 뒤에 우와 방실의 아들이 나이 겨우10여세에 시장에서 노닐 때에 사람들이 다투어 물건을 주면서 지금 우리들이 편안히 먹고 자는 것은 다 세 원수의 공이다 라고 말하며 흐느끼는 자도 있었다.[32]

> 이방실은 원의 아들이다. 충목왕 때에 원나라에 들어가서 모신 공로가 있어 즉위하자 중랑장이 되었다. 공민왕 때에 대호군으로 옮겼으며 선성에서 다루가치와 노연상이 반란을 일으키자 공이 용주 지금의 용천이다 의 병사로써 몰래 강을 건너 곧바로 연상의 집에 들어가 아비와 아들을 찔러 죽이고 머리를 서울로 가져왔다. …(중략)…
>
> 드디어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고 공에게 옥대와 옥영을 하사하였는데 공주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찌 지극한 보배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31) 「東史纂要」 高麗名臣 (條) 卷 14.
鄭世運, 安祐, 金得培 등과 함께 이방실의 행적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32) 「東史纂要」 高麗名臣 (條) 卷 14.
"芳實從忠穆入元 侍從有勞 補中郎將 恭愍朝 宣城達魯花赤 魯連祥叛 芳實以龍州兵 潛渡江 直入連祥家 刺殺父子 傳首于京…(중략)… 王宴羣臣 賜芳實玉帶玉纓 公主曰 殿下何不愛至寶以與人乎 王曰 使我宗社不爲丘墟 百姓不爲魚肉 皆芳實功也 予雖割肌膚以與之 尙不能報 況此物乎…(중략)… 後祐芳實子年甫十餘遊於市街人爭饋以物曰 今我輩獲安寢食 皆三元帥功也 至有泣下者"

> 주십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종묘사직이 언덕과 폐허가 되지 않고 백성들이 어육이 되지 않은 것은 다 당신의 공이다. 내가 비록 살갗을 잘라서라도 주더라도 오히려 보답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물건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중략)…
>
> 공의 아들이 나이가 겨우10여세에 시장에서 노닐 때에 사람들이 다투어 물건을 주면서 지금 우리들이 편안히 먹고 자는 것은 다 원수의 공이다 라고 말하며 흐느끼는 자도 있었다.[33]

이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東史纂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록하였지만 「咸州志」에서는 이방실에 대하여 단독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호칭이나 서술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내용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두 기록이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서술체계나 전체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오운은 인물의 행적에 관심이 많았다. 오운은 「동사찬요」를 서술하면서도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악을 판별하여 그 인물의 가칠르 부여하는 일에 많은 역량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동사찬요」는 다른 역사서에 비해 편년체식의 역사기록 보다 훨씬 더 많은 列傳의 기록을 갖게 되었다. 「동사찬요」가 이러한 체재를 갖추게 된 것이 바로 「함주지」의 편찬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적을 수집하고 기록했던 오운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니, 이것은 역으로 오운이 「함주지」의 편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운은 '시골의 아낙네나 천한 노예들의 행위가 孝烈의 가치가 있다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였으며, 유행하던 속담이나 이야기들도 비루하다고 하여 버리지 않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읍지의 인물조 및 인물관련조의 서술이 확장된 것이다.

---

33) 「咸州志」 人物(條).
"芳實源之子也 忠穆王入元 侍從有勞 及卽位 補中郎將 恭愍王朝 轉大護軍 宣城達魯花赤 魯連祥叛 公以龍州 今龍川 兵潛渡江 直入連祥家 刺殺父子 傳首于京師…(중략)… 遂宴羣臣 賜公玉帶玉纓 公主曰 殿下何不愛至寶以與人乎 王曰 使我宗社不爲丘墟 百姓不爲魚肉 皆芳實功也 予雖割肌膚以與之 尙未能報 況此物乎 …(중략)… 公子年甫十餘游於街市人爭饋以物曰 今我輩獲安寢食 皆元帥之功也 至有泣下者"

다음으로 '流配條'의 기록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연산군 때에 발생한 甲子士禍에 의하여 이 지역에 유배된 容齋 李荇(1478~1534)의 행적만이 언급되어 있다.

流配

이행 갑자년 봄에 연산군이 모비 윤씨를 추숭하려고 하여 그 휘호를 지극하게 하니 공이 홍문관 응교로 재직하다가 불가하다고 논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충주에 장류하였다가 겨울에 옥사가 다시 일어나서 사형해서 감하고 장형을 당한 뒤 이 고을로 와서 노예가 되었다. 을축년 정월에 이 고을에 왔다가 팔월에 익명서로 인하여 옥사가 이어지자 체포되어 다시 겨울인 병인년 정월에 거제도로 유배를 갔다. 이해 구월에 靖國한 뒤로 홍문관 응교로 불려 올라갔다.[34]

'善行條'의 기록을 예로 하나 들어본다. 여기에는 7명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예로 든 李嵩은 李居仁의 孽子인데, 이거인은 '寓居條'에 소개되어 있는 인물이다.

善行

이숭은 절도사 거인의 얼자이다. 아비가 일찍이 병이 있어 기가 끊어지자 손가락을 잘라서 약에 타 올리니 병중에서 소생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서 정려를 받게 되었다. 하리 검암에 산다.[35]

다음은 '閨行條'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6명의 부녀자들이 소개되어 있다. 예로 선정한 仁川李氏의 親父인 李郊는 '善行條'에 수록되어 있다.

閨行

인천이씨는 고충순위 강운의 처이고 효자 교의 따님이다. 나이 24세에 지

34) 「咸州志」 流配 (條).
"李荇 甲子春燕山主 欲追崇母妃尹氏 極其徽號 公以弘文館應敎 論不可 主大怒 杖流于忠州 冬獄再起 減死論杖 屬郡爲奴 乙丑正月至郡 八月因匿名書 獄繫掠 更冬丙寅正月出配巨濟島 是年九月 靖國以弘文應敎 被召還"

35) 「咸州志」 善行 (條).
"李嵩 節度使居仁之孽子 父嘗病而氣絶 斷指和藥以進 病乃得甦 事聞旌閭 居下里儉巖"

> 아비를 잃었는데 상을 치르는 일과 제사를 받드는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다. 삼년동안 머리를 만지지 않았으며 죽을 때까지 냄새가 강한 풀이나 고기를 먹지 않았다. 삭망제를 지낼 때는 애통함이 마치 초상을 치룰 때와 같았다. 부모가 몸이 야위고 피곤함을 걱정하여 맛있는 음식을 권하여도 울며 따르지 않았다. 중중 때 이 일이 소문나서 정려를 받았다. 평광리에 산다.[36]

마지막으로 '見行條'의 서술방식을 살펴본다. 예로 든 인물은 비복인 七今이다.

> **見行**
> 칠금은 노비로서 노비 동량의 처이다. 일찍이 그 지아비를 잃어서 사람들이 그 뜻을 빼앗고자 했으나 죽음을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동가식 서가숙하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비천하게 여겨 침을 뱉었으며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켰다. 우곡에 산다.[37]

이상에서 예를 든 인물들은 사대부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이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행적이 남들보다 특이하여 기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당시 유교의 이념이 치국의 요체였던 조선시대에서 당연히 장려되고 칭송되어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孝烈의 행위가 돋보이는 경우는 그들의 행적이 읍지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叢談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항은 '叢談', 말 그대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신변잡기를 수집해 놓은 수필류와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

인물이나 인물관련조의 기사들이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록된 것인 반면에, '叢談'은 재미있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

36) 「咸州志」 閨行 (條).
"仁川李氏 故忠順衛姜沄妻 孝子郊之女 年二十四喪夫 治喪奉祭 出於至誠 三年不理髮 終身不食葷肉 朔望之祭 哀慟如初喪 父母悶其羸憊 勸滋味 泣不從 中廟朝 事聞旌閭 居平廣里"

37) 「咸州志」 見行 (條).
"七今私婢而私奴勳良妻也 早喪其夫 人有欲奪其志 誓死不從 見人東西食宿 則必鄙而唾之 守節終身焉 居牛谷""

'叢談'은 2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인물의 행적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地理에 대한 기록도 있다. 조목별로 볼 때 이 부분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운과 정구의 읍지 편찬 의도가 인물에 대한 기록을 강조함으로써 풍속을 교화하고자 함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 주부 조감은 정견의 아들이다. 일찍이 상사 정두여에게 수업하였는데, 상사의 생질 김태현과 같이 배웠다. 그가 가난하여 양친을 봉양할 수도 없음을 보고 일찍이 음식과 의복을 계속 보내어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비들을 보내어 땔감을 하도록 도왔다. (김태현이) 모친상을 당했어도 궁핍하여 상을 치르지 못한다는 말을 한양에서 듣고 곧 가노 50명에게 3일의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일을 도와 끝내게 했다. 양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칭찬한다.[38]

趙堪의 일은 선행에도 속할 수 있었으나, 선행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넓은 아량과 풍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叢談'에 수록해 놓은 것 같다.

이러한 「함주지」의 체재와 서술방식은 후대인에게도 많은 공감과 영향을 주었다. 앞에서 언급한 임흘의 발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의 발문을 보면 「함주지」에 소개된 인물 중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발췌, 재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발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전의 지리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함주지」의 서술방식이 당시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이 오운이 「咸州志」의 편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오운은 「咸州志」의 편찬에 참여하면서부터 인물의 행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발전하여 「東史纂要」에서 역사기록 못지 않게 인물의 행적을 강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

38) 「咸州志」 叢談(條). '主簿趙堪庭堅之子 嘗受業於鄭上舍斗 與上舍之甥姪金台鉉同學 見其貧窶無以養親 嘗繼送衣食 使不至乏絶 又給童奴以供負薪 及遭母喪 窮不克葬 則在京聞之 卽令家奴五十名 持三日糧 助役俾之克 襄晋人至今稱道'

5. 結 論

본고는 조선 최초의 사찬읍지인 「咸州志」의 편찬에 오운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앞서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寒岡 鄭逑는 1587년(선조20, 丁亥)에 경상도 함안군의 읍재로 부임하였다. 鄭逑는 이전에도 임무를 맡은 고을마다 읍지를 만들었는데 함안군에서도 이 지역의 읍지인 「咸州志」를 편찬하였다. 鄭逑는 이를 위해 朴齊仁, 李俔, 李瀞, 吳澐 등의 협조를 받아 읍지를 편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정구와 함께 남명 조식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정구에게 읍지의 편찬을 요청한 것은 오운이었으며, 다른 이들은 함안사족의 하나였으나, 오운은 함안의 학문과 교육을 주도하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오운이 「함주지」의 편찬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오운은 임진란 후인 1600년(선조33, 庚子)에 鄭逑를 다시 만나 「咸州志」를 필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鄭逑의 제자인 旅軒 張顯光의 기록과 任屹의 발문으로 미루어 볼 때 현전하는 「咸州志」는 오운의 필사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장현광이 정리한 정구의 行狀에 의하면 장현광마저도 이 읍지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정구의 자손들까지도 「함주지」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함주지」의 보전과 전승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인물이 오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咸州志」의 특징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人物條의 기록이다. 이방실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보다는 「咸州志」의 기록이 훨씬 더 자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방실에 관한 기록이 오운이 편찬한 역사서인 「동사편요」에 거의 동일하게 실려 있는데, 이것

은 오운이 「함주지」의 편찬에 있어서 실제로 집필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운은 「함주지」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는 일을 발전시켜 「동사찬요」의 서술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의 人物條에는 단 2명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咸州志」에는 무려 37명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이 「咸州志」 편찬의 중요한 의도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함주지」는 새로운 체재와 서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전의 지리지의 형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任屹의 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던 바와 같이 이 읍지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후의 읍지에게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앞으로 오운의 편찬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질 때 조선조 중기에 있어서 주목해야할 도서 편찬자로서의 위상이 밝혀질 것이다.

KCI

<참고문헌>

姜昌龍. “16世紀 私撰 邑誌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8.

金慶洙. “鄭逑의 「咸州志」 硏究.” 「民族文化의 諸問題: 于江 권태원 교수 정년기념 논총」. 대전: 세종문화사, 1994.

박 주. “朝鮮中期 孝子, 烈女에 대한 考察 : 「咸州志」와 「永嘉誌」를 중심으로.” 「硏究論文集」 56(1997.12). 143-167.

楊普景.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_____. “朝鮮時代 邑誌의 體裁와 特徵.” 「硏究論文集」(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1997). 203-225.

_____. “朝鮮中期 私撰邑誌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81.(1998). 43-72.

崔允榛. “朝鮮時代 地方 士族硏究.”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4.

_____. “朝鮮前期 鄕村勢力 硏究를위한 試論.” 「전주사학」 4(1996.11). 83-109.

_____. “16·17세기에 편찬된 慶尙道 私撰邑誌.” 「전주사학」 17(1994.12). 19-52.

吳 澐. 「東史纂要」 卷14.

張顯光. 「旅軒集」 卷 13.

鄭 逑. 「寒岡集」 萬曆丁巳(1617). 卷10.

_____. 「咸州志」 宣祖20년(1587). 영인복제본. (서울: 한국인문과학원,1991). 한국읍지총람(조선시대사찬읍지, 23 : 경상도편, 8).

「新增東國輿地勝覽」 咸安郡 人物(條).